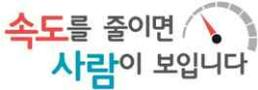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7. 24(화) / 총1매(본문1매)
담당 부서	신교통개발과	담당자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김선욱 • ☎ (044) 201-382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어른ID 빌리면...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” 보도 관련

- 국토부는 '17년 9월 「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」을 마련해, 휴대폰·면허증·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으며,
 - 예약·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, 불법 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.
- 다만,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,
 - 국토부는 쏘카·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와 협의해, 가입 시 등록된 휴대폰 기기만으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'디바이스 인증'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.
 - 아울러,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조선일보, 7.24) >

- ◆ 어른ID 빌리면...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

 -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돈을 건네고 카셰어링 앱 아이디를 빌리는 사례 빈발,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발생
 - 지난해 카셰어링 가입 시 인증체계를 강화했으나 아이디 임대 도용에는 허점, 추가 인증 절차 도입 및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김선욱 사무관(☎ 044-201-382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